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한 일본 사회운동 사례와 그 의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SEALDs)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원경 _조치대학교 특별연구원

논문요약

이 연구는 2015년 일본 아베 정권의 안보 관련 법제 제·개정에 반대하는 운동을 진행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학생긴급행동(SEALDs)’이 인터넷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해왔는지 조사하고, 이와 같은 활동의 의의를 고찰했다. SEALDs는 조직 대표를 선정하지 않고 30여 명의 멤버를 중심으로 유연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며 활동을 추진해왔다. 특히,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은 LINE 메신저 등 SNS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저비용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집회 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를 쉽게 공유하고 전파시킬 수 있어서 네트워크를 급속히 확장해나갈 수 있었다. SEALDs는 해산 후에도 일본 시민사회운동의 양상 변화, 특히 인터넷 미디어 활용 증대 등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바, 파생 단체 및 평화헌법 관련 시민단체들의 최근 활동을 통해 SEALDs 활동의 의의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 **주요어:** 일본, 사회운동, 인터넷, 평화헌법, 안보법

DOI: <http://dx.doi.org/10.31008/MV.39.7>

1. 들어가며

2015년 5월 결성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학생긴급행동 (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s: SEALDs)’은 2016년 8월 공식 해체되기까지 1년여 간 일본을 비롯한 각국 미디어 및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1970년대 중후반 명맥이 끊긴 학생운동 이후 40여 년간 수많은 이슈에 침묵하던 청년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일본 안팎에서 궁금해했고, 그들의 집회가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 제·개정을 저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각기 다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SEALDs는 출범 초기 집회에서 부르짖었던 안보법안 저지나, 그 이후 목표로 설정했던 2016년 참의원 선거 승리를 이루어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SEALDs의 중심 멤버들은 출범 당시부터 단지 안보법안을 반대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최종 목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임을 명확히 한 만큼, 해체 이후에도 사회 각지에서 행동을 이어나가 일본 사회에 ‘민주주의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주장한다(SEALDs 2016a).

SEALDs는 일본 안보법안에 대해 좌파 계열 시민단체들과 유사한 입장을 취했으나, 구체적인 활동 양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 집회 방식에 있어서 SEALDs는 신좌익 세력 등의 폭력적 시위를 비판하며, 집회를 원활히 개최하기 위해 경찰들과 협조 관계를 맺었다. 또한, 폭넓은 세대에게 그들의 활동을 전파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매스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것도 일본의 기존 시민운동과는 차별되는 행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SEALDs 관련 보도와 저작은 이 같은 점에 주목하여, 재기발랄한 SEALDs의 집회 양상을 묘사하거나, 일본 학생운동이 부활한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SEALDs 활동기와 해체 이후의 동향을 인터넷 미디어의 활용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재조명해보았다. SEALDs의 전신 단체들이 활동했던 2013년경부터, 2018년 현재까지 SEALDs 및 관련 단체들의 인터넷 미디어 활용에 있어서 △조직을 확장하고 멤버 간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기능을 사용했는지, △집회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에 대해 일본 인터넷 이용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존 일본 시민사회단체들은 인터넷 미디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었으며, SEALDs의 등장 이후 변화한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해 문헌 연구를 실시했다. 또한, 참가 멤버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기존 문헌을 통해 밝혀내기 힘들었던 부분, 특히 이들이 SEALDs에 참가하기까지 사이버 공간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고, 참가 이후 조직 안과 밖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회연결망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등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았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일본 사회 및 시민사회단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이 연구는 2장에서 SEALDs에 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하여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10대, 20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에서 공

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성으로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과 인터넷 미디어의 활용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일본 사회에서는 2010년대 초반까지 이런 경향이 드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우익 성향의 이용자들이 혐오 발언을 이어가는 등 사이버 공간의 우경화가 문제로 여겨지기도 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SEALDs의 활동이 일본 사회 내에서,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3장에서는 2015~2016년 SEALDs의 주요 활동을 공식 홈페이지, 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그램·라인(LINE) 메신저 등 SNS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행동 특성을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터넷 미디어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뒤, 참가자 인터뷰를 통해 그 효용성을 평가했다. SEALDs는 안보법안 폐지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2016년 8월 해산했지만, SEALDs 등장 이후 일본 내 시민단체들의 인터넷 웹사이트 및 SNS의 이용이 활발해지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4장에서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SEALDs 및 관련 단체들의 인터넷 미디어 이용 방법을 조사하는 한편, 인터넷 상에 SEALDs 관련 정보가 일본어를 기준으로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일본 안보법은 한국의 안보 환경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안보법 제·개정 이후 헌법 9조 개정으로 이어지는 아베 정권의 목표가 달성된다면, 남북한을 포함한 한미일 관계와 한중일 관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도, SEALDs 및 일본 내 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2. 이론적 배경

1) 기존 연구

일본 내에서는 SEALDs가 활발하게 활동할 2015년 전후로 언론 보도가 급격히 증가한 바 있으며, 2018년 현재까지 약 10편의 관련 도서가 출간되었다.¹⁾ 학계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인데, 야마모토(山本奈生 2016)와 후쿠시마(福島香織 2016) 등이 SEALDs의 활동을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시민사회운동의 등장이라는 글로벌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인지, 일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

야마모토는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서의 SEALDs의 성과를 평가하며, SEALDs 조직이 중앙집권적이지 않고, 내셔널리즘적인 성향에서 벗어나 범세계적인 가치관 중 하나인 ‘입헌주의’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인터넷을 활발히 이용한 행동 양상은 글로벌한 흐름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것이 도입됨으로써 일본에서도 새로운 사회운동으로의 이행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1) 단행본 중 과반수는 SEALDs 멤버들이 직접 출판에 참여했거나, 인터뷰 등으로 적극 협조한 저작들이다(SEALDs 2015; 高橋源一郎 2015; 高橋源一郎·SEALDs 2015). 한편, 좌파 성향의 정기간행물들이 2015년 전후 SEALDs 관련 특집호를 발간하기도 했다(石田英敬 2015; 磯部涼 2015; 添田馨 2015).

후쿠시마는 SEALDs의 활동이 2014년 홍콩의 우산 혁명과 대만의 해바라기 운동 등의 영향을 받았고, 성년 청년들이 거리로 나서게 된 배경에는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의 무한 경쟁과 그로 인한 청년실업 등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한편, SEALDs의 등장은 일본만의 맥락 역시 가지고 있는데, 버블 경제가 붕괴한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청년 세대는 프리터, 니트, 오타쿠 등 폐색감이 감도는 아웃사이더적인 존재로서 인식되다가, 처음으로 학습하고 고민하는 지식인으로서의 대학생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2015년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 개정에 대항하여 일본 전역에서 수십만 명이 반대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SEALDs의 활동이 일부 소개되고 관련 서적이 번역되어 출판된 바 있으나 르포 형식의 기록이 대부분이다. 학술 연구로는 조경희(2016)가 SEALDs의 운동의 과급력이 증폭된 것은 사상, 이데올로기, 지식을 중심으로 한 주지주의적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SEALDs가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공포, 평화 상실의 위기의식을 기본적인 원동력으로 삼았고, 이를 일상적인 언어와 음악, 시각물로 표현하면서 효과를 촉발시켰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편, 와타나베 외(渡邊久哲·海老塚恵, 2016)가 SEALDs의 활동에 대한 5개 일본 신문의 보도를 비교분석하여 SEALDs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의 변화를 살펴보는 등 새로운 시민사회운동과 미디어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SEALDs의 활동을 뉴미디어, 특

히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용에 소극적이었던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평가하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글로벌한 관점에서는 인터넷 미디어와 민주주의의 연관성에 관심을 갖는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매스미디어 시대의 시민이 정당이나 후보자의 동원에 수동적으로 대응했음에 비해, 소셜미디어 시대의 시민은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슈를 만들어내며, 이슈의 유통 과정에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통해 선거 과정과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civic engagement)한다고 지적해온 바 있다(송경재 2010). 또한, 인터넷은 소수 의견도 전체 구조 변화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주기 용이한 다중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론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폭발하려면 특정 사안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인터넷은 기술적으로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Watts and Dodds 2007; Castells 2010).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가 급속히 도입되면서 민족 및 애국주의가 금기시되었고 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신할 수 없는 시대가 장기간 계속되었다. 민족주의와 관련해 금기시됐던 담론들이 인터넷이 보급된 1995년 이후 한꺼번에 분출됐고 특히 2000년대 이후 블로그와 SNS의 등장으로 인터넷이 우익적 방향으로 극단화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福田充 2011). 이에 더해, 곤도 외(近藤瑠漫·谷崎晃 2007)나 스즈키(鈴木謙介 2008)는 버블 경제의 혜택을 입은 세

대들이 경제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생긴 심리적 여유를 기반으로 좌파적 성향을 띄고 있는 것에 비해,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넷우익²⁾이 인터넷상에서 내셔널리즘을 하위 문화 형태로 발현시켜 재미를 찾고 나아가 취미로 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이, 2010년대 초반까지 일본 인터넷상에는 ‘넷우익’을 중심으로 한 우경화 경향이 두드러지는 현실을 다룬 연구가 다수 존재했으나(이원경 2013), SEALDs 등장으로 다시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의 인터넷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SEALDs의 활동을 네트워크 시대의 새로운 정치현상 중 하나로 바라보며, 일본 시민사회운동사에서의 의의를 신중히 평가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SEALDs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거시적인 가치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진 2015~2016년 사이에는 안보법안 반대라는 단일 이슈를 확산시키는 것에 집중되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밀도에 따라 여론이 확산되는 과정에는 차이가 있으며, 인터

2) 넷우익(ネット右翼)은 ‘인터넷’과 ‘우익’의 합성어로, 민족주의 혹은 국수주의를 신봉하는 일본의 인터넷 이용자, 특히 인터넷상에서 민족주의적 시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이용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넷은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인터넷상에서는 개인이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타인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는 점이 SEALDs의 활동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SEALDs와 그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해 기존 언론 보도와 논문, 인터넷 상의 게시물 등을 포괄하는 문헌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SEALDs 멤버 중 9명을 대상으로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여 조사 내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표 1〉 인터뷰 대상자 인적사항

참가자	연령	성별	전공	집회 참가회수	역할	참가동기	ICT 활용능력
A	23	여성	법학	11-15회	홈페이지 내용 작성	토론 동아리	중상
B	25	남성	공학	6-10회	집회 참가, 발언	SNS를 보고	상
C	26	여성	사학	11-15회	플래카드 디자인	친구의 추천	중상
D	23	여성	의료	3-5회	집회 참가	친구의 SNS를 보고	중
E	24	여성	의료	15-20회	집회 정리, 의료 스텝	SNS를 보고	중
F	22	남성	어학	6-10회	플래카드 디자인	친구의 추천	상
G	21	여성	국제학	3-5회	집회 참가, 발언	SNS를 보고	중상
H	23	여성	국제학	6-10회	집회 참가, 영상 촬영 보조	토론 동아리	상
I	23	여성	국제학	3-5회	집회 참가, 발언	친구의 추천	중상

인터뷰는 2018년 5월부터 8월 사이, 총 9명을 대상으로 각 연구 참여자 당 1~3회의 반구조화(semi-structured) 형식으로 진행됐다. 3개 대학에서 SEALDs 활동에 간접적으로 참가한 교원들의 소개를 통해

△SEALDs 관련 활동 3개월 이상 경험, △3장 1절에서 후술할 SEALDs 내 ‘반(班)’ 소속, △매스미디어 혹은 SEALDs 관련 단행본 등에 노출되지 않았던 대상자를 모집했다. 참여자들에게는 개인 신상 및 인터뷰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응답 내용은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을 고지하고, △연령과 교육 배경 등 기본 사항, △SEALDs 참가 동기, △ICT 활용능력 자기 평가, △인터넷 및 SNS 이용 빈도, △SEALDs 내 역할, △SEALDs 활동에 대한 감상 등의 공통 사항을 먼저 질문한 뒤 이와 관련한 자유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참여자들의 특징으로는, 대학 진학 전 구미권을 중심으로 외국 거주 경험이 있고,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SEALDs 중심 멤버들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타 집단에 비해 귀국 자녀 등 해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한 기존 언론 보도 등이 있어, 동 인터뷰 대상자가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SEALDs 참가 동기에 대해 “전쟁 가능한 일본이라는 개념이 그리스도 정신과 상충된다고 생각했다”, “일본 정치 수업에서 유학생들과 평화헌법의 의의에 대해 논하며 현 상황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해외 언론 등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다”고 언급하는 등, 기존까지 일본 젊은이들의 이미지를 대변하던 ‘정치에 관심 없는, 고립된 섬나라의 국민’과는 차별되는 특징이 드러났다. 또한, 동 인터뷰는 9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ICT 기기 이용 능력에 대해 5단계로 스스로 평가해보라고 질문하고, 조사자가 일본

문부과학성 기준 ‘정보활용능력’ 항목을 재질문해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대조군으로 설정된 참가자 소속 3개 대학 일반 학생 142명 평균(중하, 5점 만점 2.3)보다 크게 높은 3.67로 나타났다. 3장과 4장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참여자의 특징에 유념하며 SEALDs 활동과 인터넷 미디어의 동학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 자료로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였다.

3.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SEALDs)의 활동과 인터넷 미디어

1) 등장 배경

일본 내 일부 언론은 SEALDs가 안보법안에 반대한 청년들이 SNS 상에서 떠들다가 갑자기 결성한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으나, SEALDs의 중심 멤버들 중에는 2012년경부터 함께 행동하고 관련 모임을 가진 이력이 존재한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각지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주도자 및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50대 이상의 연장자들이었고 소수의 청년들이 동석하는 정도였다. 여기에 참석했던 청년들은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모임 ‘the Temporary Autonomous Zone(TAZ)’을 결성해서 집회가 없을 때는 SNS를 통해 연락을 이어갔다(SEALDs 2016a). 이후 2013년 12월 특

정비밀보호법³⁾이 사회 쟁점으로 떠오르자, TAZ 당시부터 정부 정책에 문제의식을 가진 대학생들과 그 주변 인물들이 합류하여 ‘Students Against Secret Protection Law(SASPL)’을 결성했다. SASPL은 당시 법안 통과에 반대하여 총리 관저 주변 등에서 항의집회 등을 진행해서 대중들의 관심도 다소 모았으나, 법안 저지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법안 시행 후 활동이 중단된 바 있다. 1년여 뒤 SASPL 참가자들의 SNS를 중심으로, 이번에는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⁴⁾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원전이나 특정비밀보호법보다는 20대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전쟁 문제,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징병제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닌가”, “안보법안이 통과된 다음에는 헌법 9조도 개정일까”, “평화헌법⁵⁾도 위태롭다” 등의

- 3) 아베 정권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일본 정부가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누설한 자는 최고 10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능한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해, 2013년 12월 참의원 결의를 강행, 통과시켰다. 동 법은 특정 비밀 지정 기준이 모호하여 합법적인 검열 수단으로 악용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법안이 가결되기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싸고 일본 내 찬반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 4) 아베 정권은 2015년 9월 하순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자위대법, △유엔PKO협력법 등 10개의 법안을 개정하고(평화안전법제정비법), 국제평화지원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동 법안의 제·개정으로 주변 국가의 분쟁 중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태에 대해 집단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해지고(중요영향사태안전확보법 개정), 해외 분쟁지역에 자위대의 파견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국제평화지원법) 등이 특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5) 일본 헌법 9조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동 조항 1조는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회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

논의가 이어졌고, ‘평화헌법과 입헌주의를 지키고 대화와 협력에 기초한 외교·안보 정책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내세운 SEALDs가 2015년 5월 3일 헌법기념일을 맞아 출범하였다.

SEALDs는 중앙집권적인 체계보다는 개별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도로 대표를 선출하지 않았지만, 전신으로 삼고 있는 TAZ, SASPL 당시부터 활동해온 몇몇 멤버가 ‘부사령관’으로 활동하며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간 꾸준히 공부해온 일본 사회문제들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냈다. 이외에도 중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30~50명이 오프라인 모임에서 △영상반, △디자인반, △출판반, △콘텐츠반, △국제, △콜센터, △살롱(이벤트), △물품판매, △회계 등 각자 자신이 자신 있는 업무를 맡아 활동하는 한편, 최대 1천여 명에 달한 SEALDs 멤버들에게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

기존 연구 중에서는 중심 멤버들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며, 메이저대학, 리트대학, 조치대학 등 주로 도쿄에 위치한 기독교 재단 대학 재학생이 많다고 서술한 것이 있다(Kingston 2015). 인터뷰 참여자들은 중심 멤버들 중 동창생이 많거나 무리 짓는 분위기가 아니었

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는 데 이어 2항에서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외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자위대의 존재 및 집단자위권을 위해 이를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 한편, 일본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6년 공포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고, SNS 등을 통해 혼자 혹은 소수로 합류해 중심 멤버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출신 대학에 대해서도, 집회가 대부분 평일 저녁에 열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쿄 도심에 위치한 대학 재학생들이 수업 후 참가하는 경우가 많았을 뿐 특정 대학에 편중되지는 않았다고 응답했다. 9명의 인터뷰 대상자 중 5명이 직접적으로 아는 친구·지인의 제안으로 SEALDs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한편, 4명은 인터넷을 통해 SEALDs의 취지를 접하고 SNS로 합류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3명은 활동 전까지 SEALDs 멤버들과 전혀 접점이 없는 상태였는데, 1명은 유튜브 라이브에서 SEALDs 활동을 보고 인상적이라 합류를 결정했으며, 2명은 신문 등 기존 언론에 보도된 SEALDs를 처음 접한 뒤 웹 검색으로 세부 사항을 알아보고 활동하게 되었다고 밝혀, 가입에 있어서 인터넷 미디어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SEALDs 참가자 간 커뮤니케이션이 무료 통신 어플리케이션인 LINE 메시지와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두드러졌다. 중심 멤버들이 LINE 대화방에서 정책 등을 논의한 뒤, 각각 하부 그룹에 이를 전달하고 집회 일정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을 독려하는 것도 모두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집행부 측은 조직 유지와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한편, 각 참가자들도 집회 일정을 통보받은 이후 ‘오늘은 피곤해서’, ‘선약이 있어서’ 등 부담스럽지 않게 불참 의사를 밝히는 등 민주적인 의사소통에도 크게 기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SEALDs의 특징은, 그 조직의 확대 측면에서도 잘 드러난다. 추천인이 필요하거나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기존 시민단체 가입과는 달리, SEALDs 참가 절차는 매우 간단해서 처음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구독이나 팔로(follow)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해당 페이지에 공지된 집회나 학습 모임에 직접 참가하면 행사 종료 후 자연스럽게 LINE 대화방에 초대받게 되고, 집회 참가 시 모금이 진행될 경우 회장에 따라 회비 성격의 일정 금액을 납부하며 SEALDs에 관여하게 되는 식이다.

또한, SNS를 통해, 도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SEALDs의 존재를 알게 된 토호쿠와 간사이, 류큐(오키나와) 등 전국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청년 그룹이 ‘안보법안 반대’라는 내용으로 SEALDs와 느슨하게 연계하는 조직을 자발적으로 형성하였다. SEALDs KANSAI⁶⁾는 교토 중심부에서 약 1,800명(주최자 발표) 규모의 집회를 실시했고, 2016년부터 만 18세 선거권이 도입되어 정치에 관심이 높아진 청소년층이 ‘Teens Stand up to Oppose War Law(T-ns SOWL)’, ‘Thinking about Next Generation(TNG)’ 등을 구성해 반대집회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존 일본 시민운동과 큰 차이가 있는 집회 방식을 채택했고, 인터넷을 통해 동원한 인원이 최대 10만 명

6) 고베대학 대학원생인 시오타 준(塩田潤) 등 1백여 명의 발족 멤버를 중심으로 2015년 5월 창립됐다.

에 달할 정도로 많아지자, 1970년대 이후 크게 쇠퇴했던 일본 학생 운동이 부활하는 것인지 일본 내 언론 및 학자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 주요 활동: 인터넷 미디어 활용과 성과

2015년 5월 SEALDs 결성 이후, 중심 멤버들은 먼저 자신의 SNS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멤버 간 동일한 해시태그⁷⁾를 삽입하여 온라인상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들의 활동을 기록하는 공식 홈페이지(<https://www.sealds.com/>)를 개설하고, 자신들의 주장과 참가 동기 등을 보기 쉽게 편집하여 게시하였다.

SEALDs 홈페이지의 디자인 및 레이아웃은 일본의 시민단체의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인기 인터넷 포털, BBS,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과도 차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전체적으로 패셔너블한 디자인이며, 블랙과 그레이 및 톤 다운된 컬러가 사용되어 세련된 느낌을 준다. 특히 메인 화면 전면에는 방패⁸⁾ 모양의 로고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는 SEALDs 멤버 중 예술대학 재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직접 제작한 것이다.

-
- 7) SEALDs의 발족 멤버들은 효과적인 해시태그 설정에 대해 함께 고민했고, 그 결과 ‘정말 막을 수 있어’(#本当に止める)를 채택해 활동 초기 적극적으로 확산시켰다.
- 8) SEALDs와 shield가 발음이 같다는 것에 착안하여, 방패를 형상화한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1〉 SEALDs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



자료: <https://www.sealds.com/> (접속일자: 2018/07/04)

SEALDs 중심 멤버들은 어떻게 하면 동세대들의 공감을 유도하고 집회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고, 참가를 호소하기 위해서는 ‘빠라’ 같은 유인물이 아니라, 멋진 팸플렛과 쿨한 음악, 생생한 동영상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행동한 것이다(후쿠시마 2016). 또한 SEALDs의 로고를 삽입한 티셔츠 등을 제작하여 수익 사업으로도 연결하는 등 사회운동에서 매력(Soft power)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나갔다.

콘텐츠의 측면에서도, SEALDs의 홈페이지는 안보법안 반대 데모 이외에 대학 교수들이나 시민단체 간부 등을 초청하여 헌법과 입헌

주의에 대한 공부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평화적이면서 학구적인 이미지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한편 SNS를 통해 새롭게 참가하는 개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좌측 메뉴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영어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일본어를 사용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멋있는’ 인상을 주는 한편, 해외 언론이나 학자 등도 SEALDs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이다.

나아가 SEALDs는 과격한 시위를 진행했던 신좌익 세력을 비판하고, 원활한 집회 개최를 위해 경찰과 협조 관계를 맺었다. 또한, 행사 전날 집회 참가자들에게 SNS를 이용하여 ‘경비 팔찌를 착용한 스탠드와 변호사가 행사장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곤란한 일이 생기면 이들에게 알려주세요’ 등의 메시지를 송신하여 사전 준비가 철저한 집회라는 안심감을 주었다. 언론을 통해 SEALDs 집회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도된 ‘사운드 데모’ 역시 참가자들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 SEALDs 중심 멤버 중 한명인 우시다 요시마사(牛田悦正, 예명 UCD⁹⁾) 등이 저항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힙합 곡들을 집회 현장에서 적극 활용했던 것이다(마이니치신문 2018/03/24 석간). 이렇게 SEALDs는 기존의 시민운동과는 차별되는 방식으로 ‘집회는 멋지고 즐거운 일’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하여, <표 2>와 같은 2015년 7~9월간

9)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발신해온 힙합 뮤지션이자 SEALDs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ECD(본명 이시다 요시노리, 石田義則)을 본따 만든 예명이다.

〈표 2〉 안보법안 반대 주요 집회(2015년)

일시	지역	내용
7.14	도쿄 히비야 도쿄 국회의사당 앞	전국 집결 시민 2만 명 SEALDs가 30만 명 국회 포위계획 발표
7.16	도쿄 국회의사당 앞 삿포로, 니가타, 나고야, 교토, 히로시마 등	안보법안 중의원 본회의 통과 반대 집회 전국으로 확산
7.17	도쿄 국회의사당 앞	SEALDs 추산 참가자 15-17일간 2만 명
7.18-20	도쿄 국회의사당 앞 오사카, 사이타마, 나라, 나고야, 히로시마, 고치, 구마모토 등	5천 명 오사카 1만 명을 비롯 전국 1천여 곳에서 수백 명 규모 집회 개최
7-8월 매주 금요일	도쿄 국회의사당 앞	SEALDs 주최 '국회 앞 긴급행동' 정례 집회
8.30	도쿄 국회의사당 앞 전국 각지	주최자 발표 12만 명, 경찰 추산 3만 3천 명 집결. 주도 단체는 SEALDs, 전쟁 참가와 헌법 9조 파괴를 저지하는 총동원 행동실행위원회, 학자들의 모임,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엄마들의 모임
9.14-16	도쿄 국회의사당 앞 전국 각지	14(일)-주최자 발표 4만 5천 명, 경찰 추산 1만 7천 명 16(화)-주최자 발표 3만 5천 명, 경찰 추산 1만 3천 명 각각 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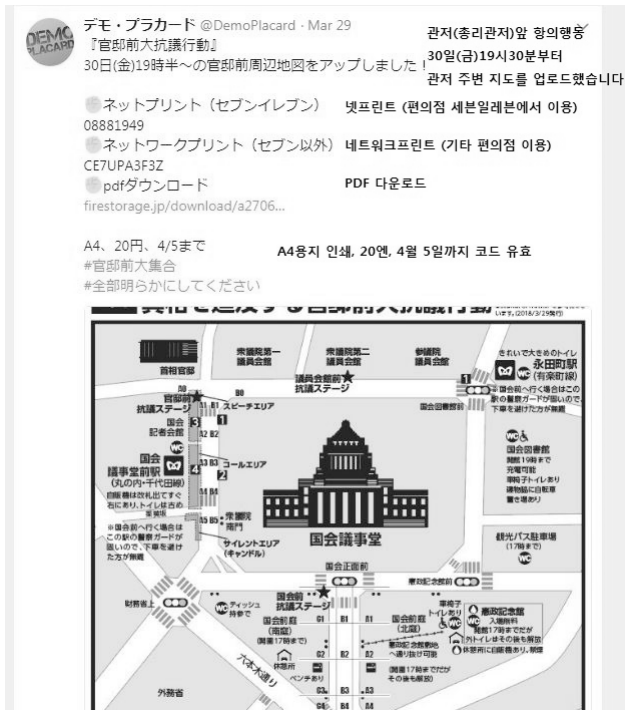
자료: 아사히신문(2015/09/17)을 바탕으로 저자 편집.

안보법안 반대 집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안보법안 반대 집회에 참가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집회를 주최한 '전쟁 참가와 헌법 9조 파괴를 저지하는 총동원 행동실행위원회'와 함께 SEALDs의 조직력이 강화¹⁰⁾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10) SEALDs에 비판적인 보수계 언론도 SEALDs가 수백여 명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인정(산케이신문 2015/08/31)했다.

〈그림 2〉 트위터 계정 @DemoPlacard



자료: <http://www.twitter.com/demoplacard>(접속일자 2018/07/05)

SEALDs는 트위터를 이용하여 집회에 사용할 수 있는 배너 샘플과 집회 장소 약도 등을 배포하는 등 인터넷 미디어를 집회 전후 및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중의원에서 안보법안 표결이 강행된 날에는 아침 일찍 항의 플래카드가 전국 각지 일제히 걸렸는데, 이는 SEALDs 멤버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진 개인들이

SEALDs 트위터의 ‘넷프린트¹¹⁾’ 번호를 보고 자발적으로 편의점에서 인쇄한 것이었다(아사히신문 2015/07/19).

집회 전 게재된 <그림 2>와 같은 약도에는 집회 장소의 무대 위치와 임시 휴게소는 물론, 자판기·편의점·화장실 등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고, ‘우비와 방한복 등을 준비해주세요’, ‘음료나 가벼운 식사 등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등의 메시지도 적혀 있다. 집회에 처음 참가하거나 혼자 참가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약도를 편의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인쇄한 뒤 지참하고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 SEALDs 운영진들은 집회 진행 동안 서로의 위치를 휴대전화 GPS 기능을 이용하여 파악하고, 안전하게 행진하는 방법 등을 논했다. 다양한 ICT 관련 기기를 이용하여 집회 참가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준 것 역시 일본 내에서는 SEALDs가 시작한 시민사회운동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 해체 및 한계

SEALDs의 활동은 일본 전역에서 다채로운 정치적 목표를 아우르

11) ‘넷프린트’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용 홈페이지에 메시지나 사진 등록한 뒤 인쇄에 필요한 번호를 트위터/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하는 시스템인데, SNS상의 가안을 보고 좋다고 느끼는 사람이 편의점에 있는 복합기에 해당 번호를 입력하면 손쉽게 A3 용지 등으로 인쇄할 수 있다.

며 큰 관심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안보 관련 법제의 제·개정을 저지하거나 정권을 교체하는 것에는 실패했고, 2016년 8월 15일 해산하게 된다. SEALDs는 출범 당시부터, 장기적인 활동이나 조직화를 계획하고 설립된 단체가 아닌 단일 이슈 운동에 가까웠고, 중심 멤버들도 조직의 확대나 유지보다는 이슈에 따른 이합집산을 선호하여 활동 중반기에 해체 일시를 미리 정해두고 계획한 활동을 마무리한 뒤 공식 해체를 선언한 것이다(Slater et al 2015). 이러한 해산 방식 역시 일본 시민사회운동에서는 전례가 없던 것이었기 때문에(*Japan Times* 2016/08/16; 마이니치신문 2016/08/22) 언론 및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고, 후술할 4장 1절에서와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으나,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SEALDs가 적극적으로 활동한 2015년 8월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과반수를 차지한 한편, 찬성은 30% 이하로 나타났다(8.28~30에 실시된 닛케이신문¹²⁾ 여론조사 안보법안 반대 55%, 찬성 27%), 2015년 9월 안보법안을 심의했던 참의원 특별위원회는 중앙 공청회를 개최해 SEALDs 창립 멤버인 오쿠다 아키(奥田愛基)의 발언을 청취하는 등(아사히신문 2015/09/16) 법안을 반대하는 청년들의 목

12) 일본 내 주요 일간지 중 닛케이신문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 한편, 보수 계열인 요미우리신문이 8.15-16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안보법안 반대 55%, 찬성 31%이었으며, 교도통신의 조사는 반대 62.4%, 찬성 29.2%로 다소 편차가 있지만 모든 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것은 명확했다.

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법이 성립된 것은 의원내각제 하에서 자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정국 상황¹³⁾과 함께, SEALDs의 활동으로 자극받은 안보법안 찬성과 등 우익 세력의 행동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2015.8.15 일본회의 주최 집회, △8.29 신주쿠 안보법안 찬성집회(약 500명 규모), △9.9 평화안전법제 조기 성립을 요청하는 국민 포럼 등 일부 우익단체 관계자가 총리관저 방문하여 스가 관방장관에게 안보법안 조기 성립 요망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또한 일본의 우익 단체들은 SEALDs의 활동이 완전히 자발적인 것이 아니며 배후에는 야당 인사들이 있다고 몰아갔다. 야당 당수들은 최대 규모였던 2015년 8월 30일 국회 앞 집회를 비롯해, 9.8 신주쿠역 앞, 9.9 히비야 공원에서 열린 안보법안 반대 집회 등에 참석했고, 에다노 민주당 간사장 등 야당 주요 인사들도 국회 앞 집회에 수시로 등장해 발언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보수계 단체들은 야당 인사들이 SEALDs 주최 집회에 참석자가 많아 보이도록 인맥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이다. 이에 대해 SEALDs는 “멤버들은 기본적으로 무당파이며, 안보법안 폐기라는 목적이 일치해 서로 협력하고 있을 뿐”이라며, 공산당 등 특정 정당과

13) 아베 총리는 2018년 초 모리토모 학원 문제 등 스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20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시 승리했다. 자민당 지지율(32%)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지율(11%)을 크게 앞서는 등 야당은 대안 세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 직접적 관계를 부정했다.

2016년 7월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통상 선거 전, SEALDs는 안보법안에 찬성한 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인터넷 캠페인¹⁴⁾을 게재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를 발신하고, 야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여 개헌 세력 2/3를 저지하자’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 역시 달성하지 못했다.¹⁵⁾ 집회와 달리, 선거는 누구나 쉽게 참가할 수 있는 정치 참여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54%에 지나지 않아, 헌법과 안보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방증했다.

한편, 일부 좌파 단체들은 ‘퍼레이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SEALDs의 활동은 일관성이 없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기반도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시민운동 및 민주주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일시적인 감정으로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장기적인 대응에 취약하고, 적절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보법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최대로 고조되었던 2015년 7~9월 이후 SEALDs와 그 지지자들의 활동은 급속히 감소했다.

14) <http://sealdspost.com/>

15) 일본 참의원(정원 242석)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실시되는 통상선거를 통해 의석의 절반씩을 선출한다. 2016년 7월 선거에서는, 2015년 6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이 기존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되는 등 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 등을 차지해 여당의 승리로 돌아갔다.

인터뷰 대상자 9명 중에서도 3명은 2015년 10월 이후 집회 참가 경험
이 없다고 밝혔다. 멤버들이 대부분 대학생들이었기 취업 등 다른
당면한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정체기에 들어선 안보법 및 헌법 문
제 논의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된 것이다. 또한, SEALDs의 중
심 멤버였으나 집회 현장에서 우익들의 공격을 받거나 정치적 신념
과는 무관한 일로 온·오프라인에서 비방¹⁶⁾을 당해 SEALDs에서 이탈
한 멤버들도 있었다(아사히신문 2017/10/07).

4. 사이버 공간의 민주주의 인식 변화와 함의

1) SEALDs의 유산: 일본 시민사회운동에의 영향

2016년 초, SEALDs의 중심 멤버들은 동년 7월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까지 야당과 힘을 합쳐 아베 정권의 독주를 저지시키는 데 매진
하고, 선거 후에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좌파 성향의 학자들은
SEALDs의 2015년 대규모 집회 활동뿐만 아니라 해산 과정과 그 이

16) 2015년 이후 SEALDs 구성원 중 미디어 등에 노출이 많았던 멤버를 향한 비방이나
협박 등도 다수 발생하였다. 특히, SEALDs 운영과 방향성 제시에 크게 기여한 것
으로 알려진 오키타 아키에게는 본인뿐만 아니라, 아버지 오키타 토모시(奥田知志)
—목사, 기타큐슈시에서 노숙자 지원을 하는 시민단체 방목(抱樸)이사장—를 위협
하는 우익 단체의 협박장 등이 다수 배달됐다(아사히신문 2018/05/10).

후의 방향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우치다 타츠루(内田樹) 고 베여학원대학 명예교수는 “SEALDs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화하고 절도 있게 행동했다(마이니치신문 2016/08/27)” 고 언급했으며, 다나카 유코(田中優子) 호세이대학 총장도 1970년대 학생운동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획득하기 위해 내부적 폭력이 만연했다는 것과 대조하며 “SEALDs의 결단은 과거의 학생운동을 답습하지 않으려는 노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마이니치신문 2016/09/14).

SEALDs 해산 이후, 류큐 등 일부 지방의 관련 단체들은 활동을 계속해나가기로 했으며, 해산한 조직의 구성원들도 정치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놓아버리기보다는 대안적인 활동을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다. SEALDs KANSAI는 도쿄 조직과 같이 8월 15일 공식 해산했으나, 안보법 성립 직후인 2016년 3월, 중심 멤버들은 지역 여성단체 및 학자들과 연계해 ‘간사이 시민연합’을 결성하고 안보법 위헌을 주장하고 폐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SEALDs KANSAI의 중심 멤버인 시오타 준은 “관심을 가진 정치 사안이 등장했을 때,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며 시민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동 단체는 안보법과 개헌 등에 반대하는 전국 각지의 시민 단체 및 야당이 공동으로 투쟁할 것을 호소하며 2018년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후쿠오카 시내 대학생들 중심으로 안보법안 반대 집회를 실시했던 FYM과, 기타큐슈를 거점으로 활동한 FYM kita9는 해산 혹은 활동 중지를 선언했으나, 멤버들은 “사회는 변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SNS를 이용해 사회운동

에 계속해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마이니치신문 2016/09/19).

본진에 해당하는 도쿄의 중심 멤버들은 SEALDs의 활동에 우호적인 각계 대표 인사들과 함께 시민단체 ‘입헌정치를 회복하는 국민운동위원회’ 등을 결성하는 등 활동을 다양화해가고 있다. 2016년 7월에는 싱크탱크 ‘ReDEMOS’를 설립해 중고생·대학생들에게 정치참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책을 연구해 정부에 제안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中原一步 2016). 2017년 3월 출범한 ‘미래를 위한 공공(未来のための公共)’¹⁷⁾은 SEALDs에 참가했던 학생들과 육아중인 엄마들이 매주 금요일 국회 앞에 모여 주로 민생과 관련된 정치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2018년 모리토모 학원 등 아베 총리의 비리 문제가 발생하자, 사건 관련 공문서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Stand For Truth’¹⁸⁾의 결성과 집회 운영¹⁹⁾에도 SEALDs의 멤버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SEALDs 파생 혹은 관련 단체들은, 기존 일본 시민단체들이 설립과 함께 단체 명부나 정관(定款)을 작성하는 것을 중시했던 것과는 달리, 가장 먼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활동 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주의 관련 이슈 이외의 시민사회운동에도 SEALDs는 직간접적

17) <http://public4future.official.jp/>

18) <https://standfortruth.jp/>

19) 이들은 2018년 4월 총리 관저 앞에서 촛불집회를 시작하는 등, 한국의 집회 방식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아사히신문 2017/03/11).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일본 반전운동의 중심에 서있는 시민 단체이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원자폭탄의 피폭자들로 구성된 모임인 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被団協)가 산하 조직 중 하나인 ‘피폭자 국제 서명’²⁰⁾ 사무국의 리더로 전 SEALDs 멤버를 임명한 것이다. 영입된 하야시다 미츠히로(林田光弘)는 나가사키 출신이자 피폭 3세라는 점도 있었지만, 그를 발탁한 다나카 테루미(田中照巳)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옛날부터 활동해 온 반핵·평화 단체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도 연대하고 싶었고, 특히, SEALDs 출신다운 감각과 행동력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영입 이유를 밝혔다(마이니치신문 2017/02/07).

한편, 안보법은 SEALDs를 비롯한 일본 시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 통과된 만큼, 시행 이후에도 위헌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안보법 시행으로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4,500여 명의 시민들이 1인당 10만 엔의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을 주도하는 ‘안보법 위헌소송 모임’은 주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²¹⁾를 중심으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 지역 소송 참가자와의 의견 교환을 장려하는 한편, 신규 참여자를 모으는 등 일본의 기존 시민운동의 방식과는 차별되는 정

20) 동 단체(ヒバクシャ国際署名)는 2016년 4월 핵무기 금지 조약의 제정을 요구하며 시작한 국제 서명운동으로, 매년 유엔총회에 서명인 명부를 제출하고 있다.

<http://hibakusha-appeal.net/>

21) <http://anpoiken.jp/>

책을 취하고 있다. 이외에도 ‘안전보장관련법에 반대하는 학자회’²²⁾ 등 일본 민주주의 관련 시민단체들이 인터넷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활동을 늘려가고 있는 바, 이 배경에는 기술의 발전 등 시대적인 변화와 함께 SEALDs의 사례를 통해 얻은 교훈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 일본 사이버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인식 변화

〈표 3〉 일본 및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터넷 이용자 비율 변화(%)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일본	30.0	38.5	46.6	48.4	62.4	66.9	68.7	74.3	75.4	78.0	78.2	79.1	86.3	86.3
한국	44.7	56.6	59.4	65.5	72.7	73.5	78.1	78.8	81.0	81.6	83.7	83.8	84.1	84.8
중국	1.8	2.6	4.6	6.2	7.3	8.5	10.5	16.0	22.6	28.9	34.3	38.3	42.3	45.8
홍콩	27.8	38.7	43.1	52.2	56.4	56.9	60.8	64.8	66.7	69.4	72.0	72.2	72.9	74.2
대만	28.1	34.9	47.6	51.9	53.8	58.0	63.7	64.5	65.8	69.9	71.5	72.0	76.0	80.0

자료: ITU, ICT Statistics Database를 기반으로 저자 편집.

일본의 인터넷 이용자 비율은 〈표 3〉에서와 같이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으나 2000년대 후반 이후 일정 궤도에 오른 뒤 2016년 93.2%에 이를 정도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인터넷 회선의 속도 등 네트워크 인프라에 해당하는 부문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일본이지만, 유달리 정당 및 관련 시민단체의 디지털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내부의 타 분야와 비교해도 상당

22) <http://anti-security-related-bill.jp/>

히 느리게 진행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정당 조직 네트워크의 전자화를 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 인터넷상의 낙천·낙선 운동이 활발히 전개한 것과 비교하면 소극적인 이용에만 제한됐다고 할 수 있다(고선규 2003). 일본 정당 및 시민단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던 배경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홈페이지 개설이 2013년까지 금지되었던 것이 있다.

한편, 한국·미국 등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사이버 공간은 집단적이지만 시민적 가치를 존중하는 독자적인 형태의 인터넷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처럼 본인확인제를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지만 기업의 선택사항으로 제시하여 다양한 인터넷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조화순·송경재 2012). 그러나 일본의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 사이에서도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정보, 특히 시사·정치 관련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네티즌을 비롯한 왜곡된 민족주의자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트롤링(trolling)²³⁾을 하거나 정

23) 인터넷상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선동적인 내용, 또는 공격적이거나 불쾌한 내용을 올려 다른 인터넷 사용자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유발시키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어로는 ‘아라시(荒らし)’라고도 불리며,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목적에 걸맞지 않는 투고를 계속하고, 다른 사람의 지적을 무시하거나 일시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다가도 결국 같은 행위를 계속하는 등 악의적으로

보를 조작해서 초래된 측면이 있다.

일본에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던 시기에는 좌파 지식인들의 이용이 두드러졌지만²⁴⁾ 이들은 사이버 공간이 지나치게 대중화되자 진지한 토론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인터넷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이들의 부재 이후 등장한 넷우익은 좌파 및 시민단체들의 활동 공백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유통시키기 시작했고, 이들의 관심이 일본 내 재일코리안, 중국인 등의 외국인과 주변국 간의 갈등 이슈로 옮겨가면서 일본의 사이버 공간이 우경화되어가고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 같은 관점에 따르면, 안보법안 반대 집회나 SEALDs의 활동에 대한 평가도 비판적인 것이 다수를 차지해야 하지만 실제 도출된 결과는 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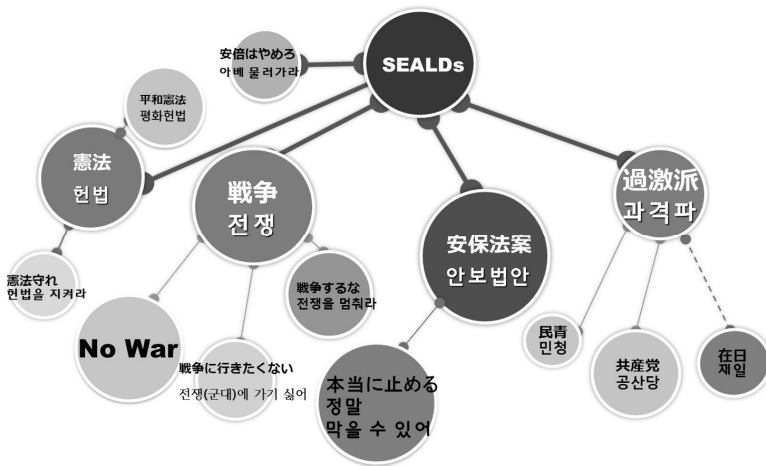
2018년 5-7월 사이 구글 재팬²⁵⁾에서 'SEALDs'를 키워드로 검색된 블로그 포스팅 및 주요 인터넷 게시판(BBS) 글 등 상위 52편의 텍스트 전문과 트위터 해시태그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문구 및 그 사이의 연관성은 <그림 3>과 같이 나타났다. SEALDs 멤버들 및 그 지지자들로 추

공동체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동을 통칭하고 있다.

24) 곤도 외(近藤瑠漫·谷崎晃 2007)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강한 개인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좌파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많고 공유정신을 중요시해서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히 의견을 교류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25) <https://www.google.co.jp> 입력 키워드에 대해, 일본어 웹페이지를 중심으로 검색 결과를 도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 SEALDs 관련 블로그 포스팅/트위터 해시태그 연관도



정되는 사람들이 작성한 글에서는 안보법안, 전쟁(戰爭), 헌법(憲法)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각 단어에 맞춰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짧은 문구(憲法守れ, 戦争するな)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트위터에서 중심 멤버들이 의도적으로 확산시킨 해시태그이거나 SEALDs의 집회 중 플래카드로 사용된 문구 등이다.

전체적으로는 SEALDs 찬성·지지의 글들이 상위 검색 결과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었으나, 분석 대상 텍스트 중 약 20%는 SEALDs를 비판하는 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찬성·지지 글과 마찬가지로 반대 글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안보법안’이었지만 차별되는 단어 중 가장 빈도가 높았던 것은 ‘과격파(過激派)’였다. 반대 글로 구분

된 11편의 논지는 대체로 비슷했는데, SEALDs가 일본 공산당, 1960~1970년대 폭력시위도 불사했던 학생운동 조직인 일본민주청년동맹(民青), 전일본학생자치회총연합(全学連), 재일코리안(在日)의 자녀 등 관련자이거나, 이들의 사주를 받아 과격한 데모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난이었다.

2010년대 초반, 일본의 인터넷 게시판이나 뉴스 게시판의 코멘트란(답글)에 우익 성향의 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과 달리, SEALDs 관련 게시물들은 좌우 성향의 글이 유사한 빈도로 나타났고, 우호적인 글들이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는, 1차적으로 SEALDs 멤버들이 일본 사이버 공간의 우편향을 인지하고, 이런 제약 하에서도 자신들의 활동을 홍보하고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기 위해 많은 글들을 포스팅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SEALDs 홈페이지와 트위터 등의 포스팅을 전담하는 그룹이 있었고, 이들 중 일부는 검색 매커니즘이나 구글 애드센스 등 수익구조까지 공부해 인터넷상의 효과적인 글쓰기를 시도했다고 했다.

2015년에는 SEALDs의 인터넷 미디어 활용에 자극을 받은 △40~50대, △60대 이상 △대학 교원 등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20대에 뒤지지 않는 정보활용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각각 MIDDLEs, OLDs, TOLDs²⁶⁾ 등을 사이버 공간에서 조직한 뒤, 각

26) OLDs(Otosiyori for Liberal Democracy: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어른들의 모임),

세대에게 친근한 지역²⁷⁾에서 집회를 갖기도 했다. 이후에도, 일본 시민단체 및 좌파 세력들이 그간 외면해왔던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며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²⁸⁾ 일부 과격파 좌익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사이버 선전’이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하지만, SEALDs의 활동으로 촉발된 일본 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인터넷 활동 증가는, ‘넷우익이 잠식했다’고 비판받던 일본 사이버 공간의 우경화에도 제동을 걸어,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것이 기대된다.

3) 일본 국내 및 아시아 시민사회운동에의 함의

인터뷰 대상자 9명 중 4명의 응답자가 SEALDs 활동을 통해 알게

TOLDs(Tokyo Liberal Democratic Sensei: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도쿄의 선생들) 등의 단체명은 SEALDs의 이름을 변용한 것이자, 모임의 성격을 재치 있게 보여주며 SEALDs의 활동을 지지한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27) OLDs는 고령자들의 하라주쿠라 불리며, 노년층의 쇼핑 및 교류의 중심지로 인기가 높은 도쿄 스가모(巣鴨)에서 안보법안 반대를 치분히 호소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 28) 대표적인 좌익 단체인 ‘중핵파(革命的共産主義者同盟全国委員: 中核派)’는 단체 기관지 ‘전진’을 20대 여성이 친근하게 소개하는 ‘전진채널(前進チャンネル)’을 2017년 유튜브에 개설하여 활발하게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도쿄대 학부생 타카하라(高原恭平)가 신규 가입한 뒤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관계자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는데, 타카하라는 ‘SNS에서 보고 가입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된 지인들과의 SNS는 유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교류를 이어가지 않는다고 언급했으며, 3명은 자신들이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는 것에 대해 실망하여 더 이상 관련 SNS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EALDs를 통해 자각하게 된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토론 모임이나 의원실 인턴십 등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응답자는 2명이었다. 그러나 후속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응답자를 포함해서, 다수의 응답자들은 조직을 성장시키고 운영해본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다. 나아가, 2015년 중 자신들의 활동이 일본 전역을 넘어 전 세계에 알려지고, 학생 입장에서는 만나기 힘들다고 여겨졌던 정치인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야당 간 선거 협력이나 공동 투쟁을 이끌어내는 데도 기여했다는 데 의의를 찾았다. 일본 내 만연했던 ‘과격파 학생운동’에 대한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토론 이벤트 등을 정례화한 것, 이것이 일본 나아가 동아시아 청년들의 세력화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성취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었다.

SEALDs 중심 멤버들은 2014년 홍콩과 대만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아그네스 초우(Agnes Chow), 조슈아 왕(Joshua Wong), 웨이팅 천(Wei-ting Chen) 등과 만나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현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 대화를 출판하기도 했다(SEALDs 2016b). 2016년 4월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청년 단체 회의에서 홍콩·대만·말레이시아 등 10개국 학생운동 단체 중 하나로 SEALDs가 일본 대표로 참석했다. 동년 12월에는 스와하라 다케시(諏訪原健) 등이 서울시 주최 콘

퍼런스에 참석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촛불집회 등을 견학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제 활동을 통해, 전 SEALDs 멤버들은 동아시아 청년들이 공통으로 처한 문제들 - 부패, 실업, 비정규직, 성차별, 난민 등 - 에 함께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전 세계적 과제로 확장해나갈 필요성을 실감했다고 한다(마이니치신문 2018/04/26). SEALDs 멤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990년대 생들은 일본 지식인들로부터, 국제 정세에 무지한 '섬나라 젊은이들'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듣던 세대이기도 했으나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심사를 확장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미디어는 SEALDs 멤버들이 동아시아 시민사회운동의 실상을 조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였을 뿐 아니라, 타국 학생운동 주도자들과 일시적인 만남을 가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갈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또한 SEALDs 중심 멤버들을 2015년 활동 당시부터 집회의 구체적인 운영을 위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알게 된 타국 사례를 벤치마킹 해 왔으며, 해체 후 주요 활동 기반으로도 사이버 공간을 상정하고 있다. SEALDs 파생 단체들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채널을 통해 비디오 캠페인을 만들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라이브 영상을 발신하고 있다. 자신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흥미 위주의 편집을 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는 매스미디어에 대해 일회일비하기 보다는,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를 유통시켜 지지자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SEALDs 해산 이후 후속 활동들은 그 활동 양상 측면에서 한국 시민사회운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이들의 활동이 한국의 안보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 안보법과 헌법 9조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보법 제·개정 이후 헌법 9조 개정으로 이어지는 아베 정권의 목표가 달성된다면, 남북한을 포함한 한미일 관계, 한중일 관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되는 바, SEALDs 파생 및 관련 단체들이 균형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나오며

2016년 8월 SEALDs 해체 이후에도 일본 내에서는 파생 및 관련 단체, 전 멤버들의 동향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SEALDs가 안보법안 저지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활동 기간 동안 인터넷 미디어와 네트워크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단일 이슈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에는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SEALDs의 중심 멤버들은 출범 당시부터 단지 안보법안을 반대하는데 끝나지 않고, 최종 목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임을 명확히 한 만큼 다양한 세대의 일반 시민들로부터의 지지와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1960~1970년대 일본 학생운동은 점차 과격화됐고 목표했던 것을 달성하지도 못해, 일본 사회에 실패의 기억뿐만 아니라

그 폭력성에 대한 강한 반감까지 남긴 바 있다. 이에 대한 여파로 2000년대 후반까지 일본 시민사회운동 현장에서는 젊은 세대를 찾기 힘들었고 60대 이상의 활동가만 남았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들려왔다. 30~50대들 사이에는 정치적인 것은 좋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정부 비판적인 발언을 해서 소속 집단에서 소외되었다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사회운동을 해도 의미가 없고, 투표로 정권 교체를 해도 사회는 바뀌지 않는다는 체념이 현재의 10~20대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던 일본 사회에, SEALDs의 활동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청사진을 제공했다는 의미도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SEALDs의 활동의 의의를 재평가하는 한편, 인터넷 미디어의 활용이라는 측면에 주목했다.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사이버 공간과 연계해 진행되는 사회운동은, 특정한 거점 없이 낮은 비용으로 조직을 유지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재미있는 구호와 세련된 사진, 포스터 등을 빠르게 유통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활용 능력이 높은 10~20대들에게 ‘놀이’처럼 여겨졌다.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이 LINE 메신저·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더해 SEALDs는 오프라인에서 활동 시에도 스마트폰의 GPS 기능 등을 이용하여 집회 참가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현장을 SNS 라이브로 중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10~20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성이지만, 2015년 SEALDs에 실

제로 참가했던 참가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일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의 의의를 고찰해보았다. SEALDs 멤버들은 사이버 공간에 대해, 개
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있고 넷우익 등의 활동으로 우경화된 공간
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높은 ICT 활용능력을 가진
멤버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인터넷
상의 여론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SEALDs와 관
련한 인터넷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중심 단어와 해시태그에서
SEALDs에 우호적인 내용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본 사이
버 공간의 성향이 균형을 찾아가는데 SEALDs 및 파생 단체가 기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SEALDs 등장 이후
일본 내 시민단체들의 인터넷 웹사이트 및 SNS의 이용이 활발해지는
등의 변화도 나타났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를 통해 일본 사회운동과
정보통신기술(ICT)·네트워크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에는 이르지
못해, 일본 사이버 공간의 변화가 일본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후속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일본 정치·사회가 우경화한다는 우려를
하고 있으나, 과거 일본에서는 각 시기별로 혹은 사안별로 좌우의 의
견이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도 나타난바, 일본 사이버 공간의 우경화
를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중립 및 좌파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
지 고려하며 향후 일본 사회의 변화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참고문헌

- 고선규. 2003. “일본 정당의 온라인화와 인터넷 선거운동.” 『국제정치논총』. 43(4). 421-444.
- 송경재. 2010. “인터넷 시민운동 양식의 변화와 의미.” 『사회이론』. 38. 203-234.
- 이원경. 2013. “일본 인터넷 민족주의의 전개와 한국에 대한 함의.” 『동아연구』. 32(2). 135-171.
- 조경희. 2016. “전후일본 70년과 복수의 평화주의: SEALDs의 운동과 정동.” 『사이』. 20. 267-299.
- 조화순·송경재. 2012. “인터넷 문화형성의 아키텍처 국제비교.” 『정보사회와 미디어』. 22. 83-111.
- 후쿠시마 미노리. 2016. “1990년대 이후의 청년세대론으로 읽는 ‘실즈(SEALDs) 현상.’” 『교양학연구』. 3. 95-128.
- Castells, M. 2010.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Malden, MA: Wiley-Blackwell.
- Kingston, J. 2015. “SEALDs: Students Slam Abe’s Assault on Japan’s Constitution.” *The Asia-Pacific Journal*, 13(1) <https://apjpf.org/-Jeff-Kingston/4371>
- Slater, D., R. O’Day, S. Uno. 2015. “SEALDs Research Note on Contemporary Youth Politics in Japan,” *The Asia-Pacific Journal*, 13(1). 1-28.
- Watts, D and P. Dodds. 2007. “Influentials, Networks, and Public Opinion Form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4(4). 441-458.
- 石田英敬. 2015. “民主主義のヴァージョンアップが始まった: SEALDs Revolution

- とは何か?”『社会民主』, 725, 11-14,
- 磯部涼, 2015, “SEALDsの若者が巻き起こしたデモはわれわれの社会意識を変えるのか,” *Journalism*, 307, 43-48,
- 近藤瑠漫・谷崎晃, 2007, 『ネット右翼とサブカル民主主義: マイデモクラシー症候群』, 東京: 三一書房,
- 鈴木謙介, 2008, 『サブカル・ニッポンの新自由主義: 既得権批判が若者を追い込む』, 東京: ちくま新書,
- 中原一歩, 2016, “現代の肖像 奥田愛基 SEALDs創設メンバー 一般社団法人 ‘ReDEMOS’ 代表理事 路上に咲いた孤独のテーゼ,” *Aera*, 29(1), 66-70,
- 高橋源一郎, 2015, 『ぼくらの民主主義なんだぜ』, 東京: 朝日新書,
- 高橋源一郎・SEALDs, 2015, 『民主主義ってなんだ?』, 東京: 河出書房新社,
- 添田馨, 2015, “二〇一五年安保闘争と‘戦後七〇年’: 学生集団SEALDsが果たした役割,” 『季報唯物論研究』, 133, 60-64,
- 福田充, 2011, “アメリカのパブリック・ディプロマシー2.0戦略~テロ対策とインテリジェンスとの関連性,” 『国際情勢』, 81, 381-396,
- 福島香織, 2016, 『SEALDsと東アジア若者デモってなんだ』, イースト・プレス,
- 渡邊久哲・海老塚恵, 2016, “新聞5紙によるSEALDs報道の比較調査,” 『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46, 15-79,
- 山本奈生, 2016, “安全保障関連法案と社会運動: SEALDsを中心に,” 『社会学部論集』, 62, 75-91,
- SEALDs, 2015, 『民主主義ってこれだ!』, 大月書店,
- _____, 2016a, 『民主主義は止まらない』, 東京: 河出書房新社,
- _____, 2016b, 『日本×香港×台湾: 若者はあきらめない』, 東京: 太田出版,

〈언론기사〉

- 마이니치신문. 2016/08/22. “社説：シールズ解散 「次」にどうつなげるか.”
- _____. 2016/08/27.
- _____. 2016/09/14. “田中優子の江戸から見ると：SEALDs解散.”
- _____. 2016/09/19. “安保関連法：成立1年 若者‘政治関わり続ける’新テーマで活動.”
- _____. 2017/02/07.
- _____. 2018/03/24. “ECD：言うこと聞かせる番だ国民が デモ変えた男 ラッパーの遺志, 若者導き.”
- _____. 2018/04/26. “平成ネット政治史：巻き込まれつつ巻き込もう SEALDs 元メンバー・奥田愛基さんに聞く = 逢坂巖.”
- 산케이신문. 2015/08/31.
- 아사히신문. 2015/07/19.
- _____. 2015/09/16.
- _____. 2015/09/17.
- _____. 2017/03/11. “元SEALDs ‘韓国では国民が政治を動かした’.”
- _____. 2017/10/07.
- _____. 2018/05/10. “‘抱樸’ 奥田さん, 博多で12日講演 ‘命の区別に危惧’.”
- Japan Times*, 2016/08/16. “SEALDs leaves door open for future activities.”

Abstract

The Internet Usage of SEALDs(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s) and Its Implications for Japanese Society

Rhee, Wonkyung

Sophia University, Postdoctoral Fellow

This research examines the usage of Internet and social media by a student activist organization named as 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s(SEALDs.) It protested against prime minister Shinzo Abe's right-wing cabinet and its controversial security-related bills that would allow the Japan Self-Defense Forces to be deployed overseas. SEALDs members and supporters were gathered in front of the National Diet of Japan in the end of August 2015, and the size of the crowd estimated over 100,000.

One of the reasons that SEALDs could mobilize a large number of students was the effective use of Internet. Japanese young people are reluctant to show their political opinions in everyday life, but express rather freely through articles on their websites and Twitter. SEALDs produced eye-catching brochures and stylish videos, distributed them through social networks, and finally concentrated people who set political agendas. Also, SEALDs members communicated based on social media which enabled the organization to operate at low cost and easily shared digital data that can be used during their activities. Even SEALDs disbanded on August 2016, it influenced to transform Japanese social

movement and cyber culture.

■ **Keyword:** Japan, Social Movement, Internet, Peace Constitute, Japanese Military Legislation

투고: 2018/10/01 심사: 2018/10/12 확정: 2018/11/11